

드라큘라는 피눈물 흘리는 채식주의자?

지금까지도 슬한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드라큘라가 사실은 '채식주의자'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 등 공동연구팀은 드라큘라의 실존 모델인 '블라드 3세 드라클레아'가 실제로는 채식주의 위주로 한 식단을 가졌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 블라드 3세 드라클레아(왼쪽), 그가 직접 쓴 편지(오른쪽 위)와 이 편지에서 추출된 채액을 형상화 한 모습. 사진=bizsiz.com

지난 5월 '나우뉴스'에 따르면 드라큘라는 실제 역사 속 인물이다. 블라드 3세는 지난 1431년 루마니아의 원류인 왈라키아(발라히아) 공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한 군주로 거듭나면서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물리친 용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무려 8만명에 달하는 오스만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대표적으로 죄인을 산 채로 꼬챙이에 꿰어 서서히 죽이는 것을 즐겼다. 이 때문에 그의 별칭은 블라드 체페슈로, 체페슈는 루마니아어로 가시 혹은 꼬챙이라는 뜻이다.

이번 연구는 최근 보도된 블라드 3세가 헤모라크리아(haemolacria)라는 희소병으로 피가 섞인 눈물을 흘렸다는 연구결과에 이어진 것이다. 이같은 결과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 1475년 블라드 3세가 직접 쓴 편지 등 세 가지 문서에 기반한다.

카타니아 대학 연구팀은 지난 5월 이 편지에서 생전 그가 남긴 피와 땀, 지문, 타액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사람이 종이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물질과 단백질이 남는 것에 착안해 이를 화학적

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팀은 이 편지에서 동물성 식품 단백질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글렌 질베르스타인 박사는 영국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편지 속의 식품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에서만 발견된다"면서 "블라드 3세가 실제로는 채식주의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 다만 질베르스타인 박사는 "생전 그가 채식주의 한 것은 스스로의 욕구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것일 수 있다"면서 "15세기 유럽은 매우 추위 식량이 별로 없었으며 유럽 귀족들도 매우 빈약한 식단으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카타니아 대학 연구팀의 빈센조 쿤솔로 교수는 "우리의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블라드 3세는 말년에 헤모라크리아라는 희소병을 앓아 피가 섞인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측한다면 생전의 진짜 드라큘라는 피눈물을 흘리는 채식주의자인 셈이다.

한편 그가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얻게 된 사연은 아버지 블라드 2세가 드라쿨(Dracul)로 불렸기 때문인데, 드라큘라는 그의 아들을 의미한다. 특히 드라쿨은 라틴어로 드래곤이라는 뜻도 있지만 악마라는 의미도 갖고있다.

이후 블라드 3세의 악명은 영국작가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모티브가 되면서 그는 사람을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의 대명사가 됐다.

대림 마루

모든 비즈니스 상업용, 일반 주택, 신축건물 등등
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
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



특별세일
도매, 소매 최고급 제품! 100% 방수!
\$1.99 부터

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 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
무료견적 전화: 714.833.9944
13564 Imperial Hwy. #A, Santa Fe Springs, CA 90670



어바인 Total Care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